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점심은 여선교회에서 떡국을 섬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일 점심은 장영자 권사님 가정에서 섬기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낮예배 대표 기도는 이준화 집사님입니다.
3.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담임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신청자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필요합니다.
4. <하늘문의 만나> 2월호가 분당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수량만큼 가져 가셔서 묵상용, 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한 섬김으로 신디(키보드)가 마련되었고, 그동안 미뤄졌던 교회 안팎의 CC카메라도 설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2월 11일	2월 18일	2월 25일	3월 3일
예배기도(2부)	오진석 집사	이준화 집사	김종영 집사	신태식 장로
예배기도(오후)	인도자			
식사담당	여선교회	장영자 권사 가정	가정의 주일	양은임 권사 가정

###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 환우들을 위해서
3.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4.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십티(함안), 예수교회(대구), 두리원(장애인 복지시설)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 찾아오시는 길



섬김이  
 ■ 부목사: 구은세 ■ 협동목사: 김전희 ■ 전도사: 박일선, 김진규  
 ■ 시무장로: 유중열, 박성근 ■ 협동장로: 김운식, 윤형근 ■ 은퇴장로: 신태식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ANEULMUN'S Happiness

##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	인도자	
*성시교독 .....	교독문 94번(새해2) .....	다같이
*경배찬송 .....	36장(통 36장) .....	다같이
*참회기도 .....		다같이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	송	552장(통 358장)	다	같이
대표	기도		1부인도자, 2부오전석	집사

**봉헌과 말씀**

성 경 봉 독 .....	마 12:21-28 .....	인 도 자
자녀를 위한 기도 .....		허 영 진 목사
봉 헌 기 도 .....		인 도 자
말 씬 선 포 .....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소서’ .....	허 영 진 목사
마 무 리 기 도 .....		허 영 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 회 소 식 .....	인 도 자	
*결 단 송 .....	620장 .....	다 같 이
*축 도 .....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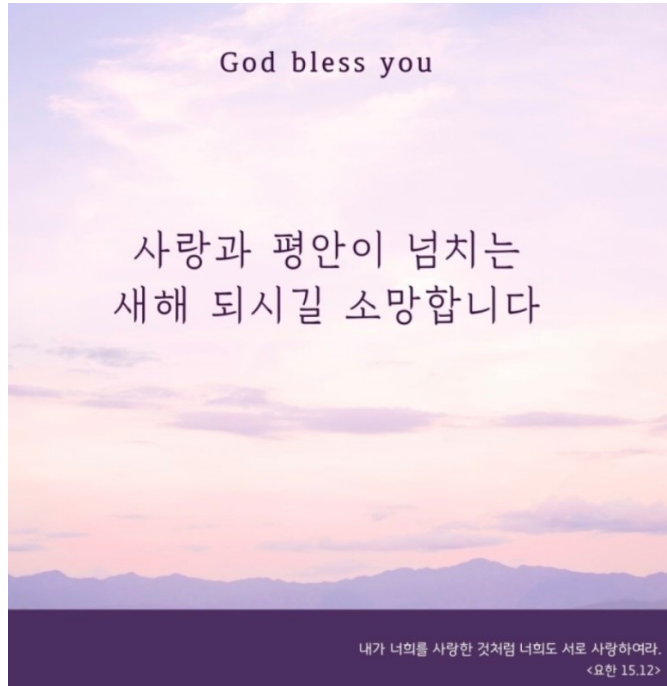
이달의 말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신명기 30장 8, 11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찬양예배는 설 연휴로 인해 쉽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사복음서 강해 마 15:21-28 '부스리기 신앙'	허영진 목사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	허영진 목사
새벽기도회 (월~금)	새벽 5:30 <하늘문인만> 말씀묵상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허영진 목사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설, 다시금 시작이다**

누구나 새해가 되면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심기일전해서 출발합니다. 그렇게 새해를 시작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그 첫 달이 그림자만 남긴 채 꼬리를 내 뺐습니다. 어느덧 2월 중순입니다.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앞에서 늘 열심을 다하지 못한 채 놓쳐버린 시간의 아쉬움이 큼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보통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애써 자위해보지만, 그럼에도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남게 마련입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은 더 큰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책 <하나님의 음성>에서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크고 험난한 산을 오르며 힘겨울 때마다 남 탓하고 상황 탓하며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속절없이 맞는 세월일지라도 때로는 자신을 이겨내고 도전한다면 삶의 가치는 더하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은 없겠지만 진정한 승리의 기쁨도 맛볼 수 없을 테니까요. 삶에서 더 나은 변화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랜 시간을 인내하고 기도하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려는 힘겨운 쟁투가 있을 때, 비로소 조금씩이나마 변화의 물꼬가 트인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어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설이었습니다.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한 것이죠. 이를 정도 지났지만,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 이래요.” 윤국영이 만든 동요 <설날>의 가사 일부가 가뭇없이 생각납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설을 보내며 이제라도 다시금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해보았으면 합니다. 요즘 모두들 세상 살기가 힘들다지만,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대세입니다.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기도는 주어진 환경에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작은 일에도 혼을 쏟아 내듯이 열정을 다하여 부단히 노력한다면, 기쁨으로 성취감을 맛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랜 기간 숙성된 영감이 한순간 뿜어져 나와 훌륭한 증후곡이 탄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시작입니다.

Written by 허영진